

금요 수필

곡성 세계장미축제를 다녀와서

초 여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던 싱그러운 5월 25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전남 곡성에서 열리는 곡성 세계장미축제를 찾았다.

오래만에 교인들과 함께 떠나는 나들이였기에 버스 안은 출발 전부터 웃음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서로 간식을 나누고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며 달리는 길은 마치 소풍을 떠나는 어린이들의 마음처럼 설레었다.

올해 장미축제는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리고 있었고, 축제가 열린 지 벌써 16년이나 되어 '장미 시즌'이라는 독특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끝없이 펼쳐진 화려하고 다양한 장미꽃이었다. 붉은 장미, 노란 장미, 흰 장미, 분홍빛 색깔 장미들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성도들은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축제의 세심한 운영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날에는 연희예술단 공연과 로즈 색스폰 앙상블 공연이 열리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음악이 장미 향기와 어우러져 축제장의 분위기를 더욱 낭만적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감상하며 함께 박수를 보냈다. 음악과 꽃,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이 어우러진 모습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축제장은 단순히 꽃만 전시하는



이만호 수필가

공간이 아니었다. 먹거리와 즐길 거리, 체험행사와 포토 존까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었고 무료 사진 인화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었다. 축제장 밖은 또 다른 품바 명인들의 경연장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품바 명인들이 모두 모여 자기만의 멋진 공연을 펼치고 있었다.

필자와 오랜 인연이 있던 최민 품바와 만나 반갑게 인사를 했다. 아간에는 화려한 조명이 장미정원을 비추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포토 존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축제였다.

무엇보다 깊이 감동한 것은 친환경 축제장을 실현하는 모습이었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운영 방식을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감상하며 함께 박수를 보냈다. 음악과 꽃,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이 어우러진 모습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축제장은 단순히 꽃만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먹거리와 즐길 거리, 체험행사와 포토 존까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었고 무료 사진 인화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었다. 축제장 밖은 또 다른 품바 명인들의 경연장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품바 명인들이 모두 모여 자기만의 멋진 공연을 펼치고 있었다.

필자와 오랜 인연이 있던 최민 품바와 만나 반갑게 인사를 했다. 아간에는 화려한 조명이 장미정원을 비추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포토 존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축제였다.

무엇보다 깊이 감동한 것은 친환경 축제장을 실현하는 모습이었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운영 방식을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감상하며 함께 박수를 보냈다. 음악과 꽃,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이 어우러진 모습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축제장은 단순히 꽃만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먹거리와 즐길 거리, 체험행사와 포토 존까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었고 무료 사진 인화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었다. 축제장 밖은 또 다른 품바 명인들의 경연장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품바 명인들이 모두 모여 자기만의 멋진 공연을 펼치고 있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 수출 5대 강국으로 성장하고, 반도체와 첨단산업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며, 문화와 관광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때는 폼치람만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작은 지방 도시의 축제 하나에도 이렇게 창의성과 열정, 질서와 문화 의식이 녹아 있다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이날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웃고 걸으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바쁜 삶 속에서는 서로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함께 꽃길을 걸으며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인생도 어쩌면 장미와 닮아 있는 지 모른다.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언젠가는 시들고, 또 누군가의 손길로 다시 가꾸어지며 새로운 꽃을 피운다.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이 있었고, 수단 송이 장미를 가꾸는 사람들의 정성이 녹아 있었으며, 자연과 공존하려는 삶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따뜻함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그 속에서 우리의 감사와 희망,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력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다.

리구머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불쾌, 의심스러운 예약은 반드시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라.

셋째, 낯선 납품업체로의 선입금은 절대 금물이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 한 번 송금된 돈은 단 몇 분 만에 대포통장을 통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대책보다는 '철저한 사전 의심'만이 최고의 방어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자영업자 스스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3가지 예방 수칙이 있다.

첫째, 공공기관은 절대 사적인 대

사설

국힘 출탈당 사태

영남 어느 지역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잇따라 탈당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자 국민의힘 후보 측이 견제에 나서는 등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군위군 책임당원 1162명과 일반당원 등 총 1701명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대규모 탈당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들은 "지금 군위군은 신흥공업 지역 우리와 함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현실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지지했던 국민의힘은 그저 당리당략에 따라 사활이 걸린 통합 신흥공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과 실용을 지향하는 정치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공개 지지하고자 한다"

며 "군위군민과 손잡고 통합신흥공 초기 안착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정치적 선택에 나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책임당원 347명이 탈당한데 이어 10일 1325명이 집단 탈당한 바 있다. 이번 탈당 당원까지 포함하면 3373명에 이른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인의 출서기와 이합집산이 아니다. 그러나 대규모 연쇄 탈당 러쉬"라며 "심지어 탈당자의 상당수는 핵심 지지기반인 책임당원"이다. 반성부터 하고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겸손한 자세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앞으로도 대규모 탈당 러시가 최소화하도록 애쓰는 것이 기본이다.

난데없는 계엄에 실망하고 윤여개인 당대표에 실망하고 난장판 집안싸움에 실망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고 대구도 바뀌고 있다.

상록수 청산 추심 벗어나

2003년 카드대란 때 생긴 부실채권을 장기 추심해 온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청산하게 되면서, 11만 명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추심을 면하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자본을 출자한 9개 회사를 불러 상록수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9개 회사는 보유한 연체채권을 상록수에 넘기고 대가로 자본 등을 받았는데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유에셋캐부, 카노인베스트먼트, 나이스제삼차 등이

해당 회사들은 상록수가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 채권을 최단시일 내에 채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채도약기금의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채도약기금의 대상이 안 돼 남은 채권들도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법원에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상록수의 청산으로 채권액 8천450억 원, 약 11만 명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장기 추심의 골레에서 벗어나게 될 예정이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 대량 부실채권 정리와 채무자의 신속 재기를 지원하려고 만든 민간 배드뱅크다. 설립 후 23년째 추심과 회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장기추심 문제를 지적하면서 속도를 냈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상록수의 장기추심 문제를 두고 '원시적 약탈금융이 서민들의 목숨을 죄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사내·외 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독자제언

달콤한 '차익 유희' 뒤 숨은 덫, 기관 사칭 사기 조심해야

최근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버터내는 자영업자들의 간절함을 노린 악질적인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로 경찰서, 구청, 공공기관, 대형 병원 등을 사칭한 '노쇼(No-Show) 대리구매 사기'다.

전형적인 수법은 이렇다. 사기꾼들은 공공기관의 직원 자처하며 수백만 원 상당의 단체 주문이나 대형 계약을 미끼로 접근한다. 자영업자가 예약 확정에 인도할 때쯤, 이들은 본색을 드러낸다. "행사에 필요한 특정 물품(예: 특정 브랜드의 와인, 기념품, 특수 식자재 등)이 필요한데, 예산 집행 절차

상 기관에서 직접 결제가 어려우니 사장님이 대신 구매해 주면 나중에 음식값과 함께 한꺼번에 정산해 주겠다"며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짜게 살 수 있는 도매업체를 안다"며 친절하게 '납품업체'의 연락처까지 소개해 준다. 하지만 이 업체 역시 한패인 공범이다. 당장 대형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과 대리구매를 통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자영업자들은 급한 마음에 의심 없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물품 대금을 송금하게 된다. 그리고 돈이 입금되는 순간, 공공

기관 간부와 납품업체는 동시에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린다. 예약된 단체 손님도, 대리구매해 준다면 물품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기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자영업자의 '불안감'과 '가장 신뢰할 만한 기관'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풀고, 대형 계약을 놓치고 싶지 않은 조금함이 눈을 가리기 쉽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영업자 스스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3가지 예방 수칙이 있다.

첫째, 공공기관은 절대 사적인 대

리구머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불쾌, 의심스러운 예약은 반드시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라.

셋째, 낯선 납품업체로의 선입금은 절대 금물이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 한 번 송금된 돈은 단 몇 분 만에 대포통장을 통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대책보다는 '철저한 사전 의심'만이 최고의 방어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자영업자 스스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3가지 예방 수칙이 있다.

첫째, 공공기관은 절대 사적인 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